

2026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구술시험

학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 의예과

인 · 적성면접 - Part 1

[문제 1]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20점)

[가] 어릴 적부터 나는 인기있는 아이가 아니었다. 일곱 살 무렵이 되었을 때, 나는 실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그들과 머릿속에서 노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낄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도 다행히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다.)

어머니는 어느 정도 기다려 보셨지만 두 해 뒤에는 내게 이런 말을 해 주셨다. “엄마는 내가 많은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한 달 정도만 친구들과 잘 지내는 척 해 볼 수 있을까? 그냥 척만 해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그래서 나는 그 조언을 따라 보았다. 먼저 인사하고, 잘 웃고, 웃기는 이야기도 해 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놀며, 잘 지내는 척 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아주 적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우정을 얻었는데, 아마도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실험이었을 것이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머니가 권유했던 것은 “바뀌고 싶은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연기하라”는 말에 가까웠다.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겠다고 의지를 발휘하고, 그 의지가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 경험이었다.

[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주인공 산티아고는 거대한 청새치를 잡기 위해 밤새워 투쟁하고 포획하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 청새치는 상어떼에게 뜯겨 남은 것이 없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성공과 실패는 별도의 사건이 아니라 ‘성공과 실패’처럼 노력에 따르는 삶의 변화를 통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삶의 복잡성 때문에 확고한 지식 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의 결정을 잠정적인 것, 즉 일종의 가설로 여기고 거듭해서 시험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목표한 방향을 놓치지 않고 향해갈 수 있다.

[다] 자기계발 지침서가 넘치는 오늘날의 주된 정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서류를 잘 분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문제라도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고들 한다. 실패는 ‘노오력’이 부족한 결과일 뿐 우연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들은 실패라는 생각 자체뿐 아니라 실패를 떠올리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도 누군가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취업에 실패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바꿀 수 없기에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의 한계와 운명을 무시한 채 성공과 변화만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책과 유명인사의 신념에 배신당하고,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멀어지며, 자신을 변화시키려다 지쳐 떨어진다.

- (1) 친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을 힘들어한다.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어떤 조언을 할 것인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10점)
- (2) (1)에서 당신이 친구에게 준 조언을 제시문 [다]의 상황을 바탕으로 변경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10점)